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4)



최근 유튜브(You Tube)를 통해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하여, 사법부 판사들의 안이한 보석과 집회허가 및 행정부 검사들의 직무유기성 기소태만(을 봄 신천지와 사람제일교회)에 대해 ‘지옥을 현재에 소환한 사람 없는 교회’, ‘감염제일교회’ 등으로 국민들은 야유와 분노를 표출하였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과 함께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의 기독교(러시아 정교) 비판과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란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일본인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와 함석헌의 무교회주의, 한국철학자이자 류영모 목사의 노자(老子)와 톨스토이의 연구 등을 책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백과사전을 통해서라도 필독해야 된다고 본다.

서울과 한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이른바 ‘고소영’의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 초에 ‘사교육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주도하는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축소 개편하려고 하였다. 그 가운데 도덕·윤리 교과를 정치·경제·지리 등과 함께 사회과 과목에 통합하려고 하며 시간 수도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동양)철학 관련 학회들이 상당한 항의와 비판을 하였었다.

먼저 ‘사교육(학원비, 과외비)을 줄인다.’는 것과는 오히려 역효과만 유발할 것이었다. 왜냐하면 과목이 축소되면 대도시 특정 지역의 돈 있는 자녀들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들여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반복 학습이 더욱 심해져 특정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의 격차가 80년대 이후 왜곡 심화된 것이 더욱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이었다. 80년대 초에 전두환 정권에서 국민들의 외면을 만회해 보려고 ‘전면 과외금지’를 표방하자 그 결과는 ‘비밀과외의 과외비 폭등’으로 빈부격차와 대학교 진학의 계급(층)화와 교육과 빈부의 세습화 논란이 그 때부터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자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사춘기 감수성과 아울러 머리가 가장 영민하고 자연 사물과 인간사회에 대한 가치관(자연·인생·사회·국가관)과 세계관이 형성될 때에, 국·영·수 중심(필수)으로 여타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면 ‘능능’, 즉 대학 수학(修學)능력 및

적성개발(전공 선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세계에서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시간은 세계 최고인데, 한국 대학생의 강의시간에 특히 교양과목과 인문학에 대한 학문적 의(질)문과 창의적 열정 그리고 학습 능력 및 수강학생의 급감으로 폐강이 속출하여 참담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3~4년 만에 졸속으로 끝난 학부제 등 대학(학과) 구조조정과 통폐합 정책은 불난 데 기름을 끼얹거나 부채질하는 최악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고액 쪽집게 과외로 문제 중심의 학습으로 들어온 이른바 ‘서울의 명문대(?)’생이나 서울 근교 수도권이나 지방 대학의 학생의 수학 능력이나 실력이 별로 차이가 없으면서, 해마다 갈수록 전체적으로 교수들이 대학 강의하기가 힘들 지경으로 하향평준화 내지 황폐화되어 버렸다.

그 결과가 최근 8.15 광화문 불법집회 후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데, 이른바 ‘(고)교성적’ 전교 1등’이라며 시간방을 땔며 최근의 의료인들의 집단 파업(?) 병원에서 진료거부-집단이탈과 의대생의 집단행동으로 수강·국시거부)으로 나타났고, 앞서 거론한 판·검사들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출신 유대인 박노자(朴露子,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2001년 한국 귀화인으로 현재 노르웨이 국립 오슬로대학 한국학 교수로 재직 중인데 그가 출간 한 책 제목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2009.6)의 부제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과거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인데, 대한민국 당시 정치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다. 제목만 보면 여행길 안내서나 교통질서 캠페인 문구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부 9년, 6개월간 2차 집회 연인원 1,695만명의 ‘촛불시민 무혈혁명’을 거쳐 탄생한 문재인인 정부의 ‘적폐청산’ 공약은 3년 4월간 현재 어떤 위상에 와 있을까?

그 책의 표지 다음 첫 쪽에 “‘선진화’ 되어간다는 대한민국에서 과중한 학습과 시험 부담, 경찰의 단속과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빼앗기거나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내외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박노자는 서문에서 “수출업자와 토건꾼, 그리고 판요들의 연합이 다스리는, 세계시장과 자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선(선)수출, 선건(先建) 국가’에서는, 예전의 한문이나 일본어와 같은 엘리트의 언어는 영어고, 예전의 홍패(紅牌)는 미국 ‘명문대학’ 박사증이며, 예전의 ‘내지인(식민지 시대 일본인)’은 백인 자본가와 고급 전문가들이다.”라고 우리 현실 사회의 단면을 정확히 진단하였었다.

그러면서 “사실, ‘수출과 토건’ 위주로 하는 이 체제의 유효기간은, 이미 1998년 외환위기 때 만료된 것이었다.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인 자유주의적 정권은 ‘개혁’과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면, 정치·경제·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조세·복지·인사·교육·통일 정책 등에서 구조와 체제를 과감히 뜯어고침으로써 총체적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야 했다.

(다음 호에 계속)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들 열 번째 모임 가져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안동권씨 6개 파종회장들이 열 번째 모임을 가졌다.

9월 15일 저녁 7시 안동시 당북동 제비원로 ‘부창한정식’식당에서 대종회 고문, 파종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권계동 대종회 고문을 비롯하여 권인탐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국장, 권영건 부회장공 파종회장,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 권준근 시중공파종회장, 권영택 정조공파종회장, 권순현 전 별장공파종회장, 권기원 파종회장협의회 사무국장 등 11명이며 권기수 별장공파종회장은 개인 불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모임 자리를 마련한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들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회장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장들을 만나니 반갑고 건강하기 바란다”며 건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가오는 시조묘소 추향제를 봉행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코로나가 계속되면 지난 추향제 때와 마찬가지로 행사를 축소해야할 형편”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은 “앞으로 안동종친회장은 지금보다 10년 젊은 70대 초반



권오수 동정공파종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의 박력과 저력이 있고 성격이 원만하며 인격이 좋은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례를 과감히 깨고 현 시대 변화에 맞도록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문중도 종친회장은 젊은 사람으로 바뀌 선출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 저녁식사는 나물국을 곁들여 한정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누다 헤어졌다. 다음 열 한 번째 모임은 오는 10월 15일 권순현 전 별장공파종회장이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순현 전 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밀알도자기’ 홈세트를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보도부장 권영건>

경자년 태사묘 추향제 세 문중 대표가 봉행



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김효진)가 주최하는 2020년도 관리위원회 회의가 9월 16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 숭보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태사묘 관리위원장, 부위원장, 관리위원, 감사,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다가오는 태사묘 추향제 시행여부에 따른 긴급회의를 가졌다.

장수식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묘우망배(廟宇望拜), 국기에 대한 경례, 상음례,

위원장 인사, 경과보고,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김효진 관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다가올 태사묘 추향봉사(秋享奉祀)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날”이라며 “신중해서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수식 사무국장은 지난 5월 16일 제20기 태사묘관리위원 상견례를 비롯, 9건의 일들을 경과보고 하고 2019 기해년 결산보고와 2020 경자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곧 이어 추석날인 오는 10월 1일(음력 8월 15일 中丁) 태사묘 추향제로 도유사(都宥司) 주재 하에 고유(告由) 또는 분향(焚香)으로 대체(代替)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1시간 동안 열린 토의를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 봄 도유사 및 헌관(獻官)들에게 망기(望記)를 보냈으나 코로나 때문에 추향제를 봉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년초 정알례(正瀾禮)처럼 헌관없이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 대표와 참제원(參祭員)들이 참석, 추향제를 봉행하기로 했다. 삼성 대표는 김효진 태사묘관리위원장, 권운주, 장기용 부위원장 2명 등 모두 3명이 헌관 역할을 맡고 참제원은 50명 내외로 제한하며 제수 품은 예년처럼 꾸밈하게 사용하기로 했다. 태사묘 측은 코로나로 인한 추향제 할례(享禮)를 바꾼 사실을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3개 문중 대표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

회의가 끝나자 참석자 전원은 태사묘 부근에 있는 ‘서울복집’ 식당으로 이동, 점심 식사를 하고나서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2020年 9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족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납부해 주신 종보대금은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단위: 원
*권오봉(대구) 30,000	권동현(안동) 30,000	권상호(제천) 30,000	권영균(하동) 30,000	권오갑(인동 윤인동) 30,000	권오찬(경주) 30,000	권일용(대구) 30,000	권중룡(합천) 30,000	권태욱(서울성동) 30,000	권학채(서울용산) 30,000	
*권오봉(대구) 30,000	권두섭(충주) 30,000	권석근(합천) 30,000	권영기(평택) 30,000	권오강(예천) 30,000	권오철(경기부천) 30,000	권일혁(군위) 30,000	권준룡(파주) 30,000	권태웅(인천) 30,000	권학채(용인) 30,000	
권경상(제천) 30,000	권두현(수원) 30,000	권석범(군산) 30,000	권영길(상주) 30,000	권오규(서울동작) 30,000	권오철(경남) 30,000	권재갑(정읍) 30,000	권준오(구미) 30,000	권태환(김포) 30,000	권학철(경주) 30,000	
권경섭(인천) 30,000	권명호(강진) 30,000	권석열(태안) 30,000	권영달(부산) 30,000	권오기(수원) 30,000	권오철(영주) 30,000	권재경(경기화성) 30,000	권준원(논산) 30,000	권태일(경기안산) 30,000	권학철(성남) 30,000	
권경진(김해) 30,000	권박현(산청) 30,000	권선식(악산) 30,000	권영달(서울강남) 30,000	권오길(경주 성건동) 30,000	권오훈(용인) 30,000	권재시(산청) 30,000	권준원(보은) 30,000	권태진(예천) 30,000	권학현(용인) 30,000	
권경진(양산) 30,000	권병관(창원) 30,000	권성오(대구) 30,000	권영대(대구) 30,000	권오덕(강릉) 30,000	권오필(경주) 30,000	권재민(광주) 30,000	권준원(부산) 30,000	권태채(대구) 30,000	권현옥(봉화) 30,000	
권경택(전주) 30,000	권병규(청양) 30,000	권성오(창원) 30,000	권영록(군포) 30,000	권오택(서울양천) 30,000	권오필(양산) 30,000	권재욱(부안) 30,000	권지용(인천) 30,000	권태평(전주) 30,000	권현호(진주) 30,000	
권경호(영양) 30,000	권병도(대구) 30,000	권성오(충주) 30,000	권영민(포항) 30,000	권오룡(서천) 30,000	권오현(구미) 30,000	권재원(응읍) 30,000	권진남(경기이천) 30,000	권태호(서울강북) 30,000	권형수(안산) 30,000	
권경훈(대구) 30,000	권병선(경기안양) 30,000	권세림(경기부천) 30,000	권영석(합천)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재홍(거창) 30,000	권진택(경주 동천동) 30,000	권태환(경기양주) 30,000	권형원(양주) 30,000	
권규홍(보은) 30,000	권병섭(경기의정부) 30,000	권세동(대구) 30,000	권영수(영주) 30,000	권오만(서울성북) 30,000	권오현(서울강남) 30,000	권진택(경산) 30,000	권진혁(제천) 30,000	권택원(서울송파) 30,000	권형대(인동) 30,000	
권규환(서울송파) 30,000	권병열(제천) 30,000	권승열(고성) 30,000	권영수(제천 화산동) 30,000	권오만(서울양천) 30,000	권오현(연천) 30,000	권정근(서울중앙) 30,000	권진현(함양) 30,000	권봉인(문경) 30,000	권홍식(정읍) 30,000	
권근(서울중앙) 30,000	권병인(영주) 30,000	권수원(상주) 30,000	권영시(서울송파) 30,000	권오룡(서울강동) 30,000	권오현(음성) 30,000	권정렬(전주) 30,000	권찬기(칠곡) 30,000	권필원(서울금천) 30,000	권화성(창녕) 30,000	
권근오(강진) 30,000	권병일(경기화성) 30,000	권수일(서울은평) 30,000	권영진(대구 화랑로) 30,000	권오석(봉화) 30,000	권오현(제천) 30,000	권정무(제천) 30,000	권창수(천안) 30,000	권필중(안동) 30,000	권후식(경기도) 30,000	
권근도(구미) 30,000	권병진(대전) 30,000	권숙장(서울광진) 30,000	권영식(안동) 30,000	권오선(칠곡) 30,000	권오훈(예천) 30,000	권정식(곡성) 30,000	권창중(제천) 30,000	권필원(안동) 30,000	권희남(서울동대문) 30,000	
권기돈(문경) 30,000	권병현(김포) 30,000	권순남(충주) 30,000	권영식(용인) 30,000	권오성(봉화) 30,000	권옥선(대구) 30,000	권정민(세종) 30,000	권창태(김포) 30,000	권혁기(서울) 30,000	권희문(충성) 30,000	
권기열(영주) 30,000	권병철(포항) 30,000	권순덕(김포) 30,000	권영진(안동 경동로) 30,000	권오성(장수) 30,000	권영민(경주) 30,000	권정용(산청) 30,000	권찬일(서울은평) 30,000	권혁민(부산) 30,000	권희준(대전) 30,000	
권기원(경주) 30,000	권병호(서천) 30,000	권순배(구미) 30,000	권영철(영양) 30,000	권오수(구미)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정창(안동) 30,000	권춘규(수원) 30,000	권학만(예산) 30,000	권희훈(대전) 30,000	
권기일(대구) 30,000	권병화(서울동작) 30,000	권순봉(경주) 30,000	권영진(상주 울곡리) 30,000	권오연(영주)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정택(상주) 30,000	권철수(대구) 30,000	권학석(서울강북) 30,000	목사공중중 30,000	
권기철(경주) 30,000	권병환(서울강북) 30,000	권순욱(경기고양) 30,000	권영준(상주) 30,000	권오연(경주)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용문(경주) 30,000	권철용(서울중앙) 30,000	권태성(서울중앙) 30,000	지사지국 납부지역	
권기태(포항) 30,000	권봉기(장수) 3,000	권순경(안동) 30,000	권영준(음성) 30,000	권오엽(영주)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용욱(경주) 30,000	권태경(제천) 30,000	권학신(김포) 30,000	권사현 총무 210,000	
권기훈(경기이천)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순경(안동) 30,000	권영준(전주) 30,000	권오영(강릉)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용일(인천) 30,000	권태환(청송) 30,000	권혁민(서울성북) 30,000	권영호(인천) 40,000	
권갑수(평택)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순경(안동) 30,000	권영준(전주) 30,000	권오영(강릉)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용일(인천) 30,000	권태환(청송) 30,000	권혁민(부산) 30,000	매한공중중 900,000	
권대경(안동)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순배(구미) 30,000	권영철(영양) 30,000	권오수(구미)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정창(안동) 30,000	권태환(청송) 30,000	권학만(예산) 30,000	화성위중중 460,000	
권대일(황성)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순배(구미) 30,000	권영철(영양) 30,000	권오수(구미)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정창(안동) 30,000	권태환(청송) 30,000	권학만(예산) 30,000		
권대익(안동)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순배(구미) 30,000	권영철(영양) 30,000	권오수(구미)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정창(안동) 30,000	권태환(청송) 30,000	권학만(예산) 30,000		
권도호(부산)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순배(구미) 30,000	권영철(영양) 30,000	권오수(구미)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정창(안동) 30,000	권태환(청송) 30,000	권학만(예산) 30,000		
권동원(서울송파)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순배(구미) 30,000	권영철(영양) 30,000	권오수(구미)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정창(안동) 30,000	권태환(청송) 30,000	권학만(예산) 30,000		
권동원(서산)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순배(구미) 30,000	권영철(영양) 30,000	권오수(구미)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정창(안동) 30,000	권태환(청송) 30,000	권학만(예산) 30,000		
권동원(서울강동) 30,000	권사현(합천) 30,000	권순배(구미) 30,000	권영철(영양) 30,000	권오수(구미) 30,000	권오현(목포) 30,000	권정창(안동) 30,000	권태환(청송) 30,000	권학만(예산) 30,000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중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8. 28 ~ 9. 22.
- 총 납부자 279명/지사 4곳
- 금액 : 10,050,000원